

꽃사슴 사육, 조선족향 향촌 진흥의 기동산업으로

— 통화시 휘남현 루가조선족향의 향촌 진흥 현장에 가보다



▲ 루가조선족향 거리 풍경 / 드론사진

통화시 휘남현 루가조선족향의 이야기는 ‘나무망루’에서 시작된다. 청조 함풍년간, 리씨와 강씨 두 가문은 동북의 드넓은 땅을 개간하려고 ‘관동’에 발을 들여놓았다. 당시 이 두 가문은 맹수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또 애써 가꾼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높은 ‘나무망루’—리가루(李家樓)와 강가루(姜家樓)를 지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간민들이 점점 많이 찾아 들고 따라서 ‘나무망루’도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을이 점차 형성되었다. 1900년, 이곳을 지키던 ‘나무망루’로 인해 지금의 ‘루가(樓街)’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루가도 여러번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민족적 광체를 더해준 진정된 순간은 1983년에 나타났다. 이해에 루가공사가 철회되고 루가향이 설립되었다. 당시 루가향이 조선족 군중들의 중요한 집거지인 사실을 감안하여 길림성정부의 승인을 받아 루가조선족향으로 정식 이름을 바꾸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루가조선족향은 산하에 루가, 광명, 룡전, 룡광(조선족촌), 무성(조선족촌), 장흥, 의룡, 판석하, 묘가가, 진진, 승리, 신영(조선족촌) 등 12개 행정촌, 35개 자연촌과 48개 촌민소조를 두고 있다. 총인구는 2만 5,805명인데 그중 조선족 인구가 3,044명으로 총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년간 루가조선족향 당위와 정부의 정확한 지도하에 꽃사슴 사육은 이미 루가조선족향의 빛나는 산업명칭으로 되었다. 현재 의룡촌, 루가촌, 묘가가촌, 장흥촌 등 촌의 꽃사

슴 수량은 1,200여마리에 달하며 룡용, 룡태고, 사슴피 등 꽃사슴 계열 제품은 매년 약 300만원의 생산액을 창출하고 있다.

의룡촌에 위치한 휘남현광평꽃사슴사육전문합작사에 들어서니 윤기나는 털과 고운 뿔을 자랑하는 꽃사슴 60여마리가 아늑하고 넓은 우리 안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자와 휘남현당위 선전부 일군들을 뵈히 쳐다보았다. 광평꽃사슴사육전문합작사 책임자 좌광해(左广海, 62세, 한족)가 옥수수이삭에서 옥수수알을 한층 뜯어 구유에 뿌리자 꽃사슴들이 금세 몰려들었다. 좌광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귀염둥이들이 바로 우리 촌의 금보배이지요.”라며 얼굴에 미소를 띤다.

루가조선족향의 꽃사슴 사육을 말할라치면 2005년부터 꽃사슴 사육에 종사한 좌광해가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이 녀석들은 키우기 아주 쉬워요! 옥수수 잘대, 콩깨묵(豆饼) 등 무엇이든 다 잘 먹어요.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과학적인 사육 덕분에 꽃사슴떼는 꾸준히 늘어나고 경제적 효익도 상당합니다.” 꽃사슴 사육업은 지난 21년 동안 줄곧 효익이 좋았는데 최고로 1년에 30여만원까지 벌었다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재, 좌광해의 인솔하에 그의 큰

형과 두 동생도 선후하여 꽃사슴 사육업에 종사하고 있다. 오늘날 꽃사슴 사육은 좌광해 가문의 가족 사업이 되었다. 좌광해는 “저의 세 형제는 예전에 모두 광판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꽃사슴을 길러 목돈을 버는 것을 보고 하나같이 마음이 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네 형제가 사육하는 꽃사슴 마리수를 합치면 근 400마리가 됩니다. 네 형제가 마음을 합쳐 함께 꽃사슴을 기르고 서로 도울 수 있어서 갈수록 힘이 납니다.”라고 웃으며 말한다.



▲ 휘남현광평꽃사슴사육전문합작사 책임자 좌광해

좌광해는 “다 알다 싶이 꽃사슴은 온몸이 보물입니다. 룡용, 룡태, 사슴피, 고기와 뼈 등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시세가 좋을 때는 룡용을 한근에 1,000~1,200원에 팔 수 있었고 고

기도 최저로 300원, 최고로는 무려 700 원에까지 팔렸습니다. 이러할진대 누가 소를 키우겠어요? 정말 보배가 따로 없어요.”라고 토로했다.

루가조선족향당위 선전위원 우시광(于时光)은 “금후 루가조선족향 당위와 정부는 더 많은 촌민들이 꽃사슴 사육업에 종사하도록 인도하고 산업사슬을 한층 더 연장하며 심층가공을 강화하여 꽃사슴 사육업을 진정 전 향의 발전을 뒤흔들하는 ‘기동산업’으로 건설함으로써 ‘사육+심층가공+문화관광’ 융합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가조선족향의 풍요로움은 ‘온몸이 보배인 꽃사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드넓은 논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7년, 루가조선족향은 성급 량식생산핵심구를 건립했고 길림성 2개 중요한 우량벼 생산기지중의 하나로 되었다. 핵심구의 면적은 5,000무에 달하고 그외에도 2,000무의 유기벼 번식기지가 있다.

루가조선족향은 이 토대에서 비약의 날개를 달았다. 영백도로의 편리한 교통과 삼동하류역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리용해 루가조선족향은 주변의 입쌀 브랜드를 통합, 20키로미터의 ‘황금입쌀경계대’를 전력으로 건설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국가 12개 부문의 비준을 거쳐 루가조선족향이 이미 길림성 제1진 ‘전국 청소년아동 식품안전 과학기술혁신실험시범기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휘남입쌀’ 지리표시 상표의 성공적인 등록은 ‘루가입쌀’의 이미지 승격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나 다름없는바 루가조선족향의 입쌀 향기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루가조선족향은 마을이 아름답고 농민들이 부유하며 산업이 흥성하다. 루가조선족향은 계속하여 특색산업, 문화전승, 향촌 진흥 등 제반 분야에서 힘을 다하여 천혜의 이 땅을 더욱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이 나날이 쑥쑥 높아가는 곳으로 건설하기 위한 발걸음을 다그치고 있다.

/ 정현관 유경복 오건 기자



‘꽃길’로 변신한 장춘 지하철역 출입구



▲ 장춘시정부역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위성 모형

올해, 장춘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조경(造景)사업에서 혁신적 돌파를 이루었다. 과학적인 계획과 예술적인 표현을 융합하여 ‘봄기운 가득한 다채로움’이라는 도시 생태의 그림을 그려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아름다운 풍경을 더해주고 있다.

기자가 현장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장춘시는 지하철역 출입구를 조정 중점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철 1호선, 2호선, 6호선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다차원적인 립체화단을 조성했다. 다년생 화초류, 관상용 관목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야생미와 정교한 미학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경관을 이루여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하철 출입구 조경은 도시의 력사문화를 깊이 발굴하여 도시 문화와 생태미학을 한층 융합시켰다. 그중 공농광장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분발장춘’ 립체화단이 건설되어 환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흥기자동차, 고속철, 인공위성 등 요소들을 결합하여 공업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도시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장춘시정부역 출입구의 ‘삼림도시’ 주제화단은 무지개 아치문과 상서로운 구름 등 요소를 융합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라는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 지하철 1, 2호선을 갈아타는데 출입구가 녹색이 우거지고 꽃에 둘러싸여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까지 상쾌해져요!” 장춘 시민 장녀사는 지하철역 출입구의 조경은 출퇴근길에 상쾌함을 가져다준다고 ‘창문을 열면 녹색이 우거지고 집문을 나서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가 일상화되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장춘시립원림국 도시록화관리처 2급 주임과원 담목역은 “궈도교통 조정사업은 동태적인 사업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손상된 룡화지대를 복원하고 자연식물들을 잘 관리하며 설계방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도시 생태경관과 궈도교통을 심층적으로 융합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담목역의 소개에 따르면 2024년 총 7개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룡화를 실시했다. 룡화 면적은 총 5.8헥타르, 교목 1,979그루, 관목 1,949그루, 잔디 3만 4,276평방미터를 심었다. 2025년 현재까지 총 9개 지하철역 주변에 룡화를 실시했는데 총면적이 약 3,500평방미터에 달하며 교목 840그루, 관목 274그루를 심었다. 2025년 하반기와 2026년에는 지하철 7호선 및 2호선 동연선 총 6개 지하철역 주변에 약 11.4헥타르 규모의 룡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정현관 류향희 기자

길림성 증식방류활동 백산시에서 가동



6일, ‘수생생물 보호,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주제로 한 2025년 길림성 수생생물 증식방류활동 및 백산시 증식방류활동이 백산시에서 가동됐다. 수생생물 증식방류활동은 우리 성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현저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백산시가 이번에 수생생물 증식방류활동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이는 어업자원의 회복을 한층 더 촉진하고 지역 수역 생태환경

경의 개선을 이끌며 ‘두개 산’ 리념을 실천하는 생동감 있는 모습이다.

최근년간 백산시의 수역 생태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어업자원이 효과적으로 회복되었다. 농업농촌부문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조직실시를 강화하고 협동협력을 강화하며 광범하게 선전 인도하여 수생생물자원의 보호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수생생물의 다양성을 수호하며 어업의 전환 승격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보호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총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새롭고도 더 큰 기여를 할 방침이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활동을 통해 백산시 혼강 분류와 국가영역수지 두곳에서 각각 연어 55만마리, 세린어 2만 5,000마리를 방류했다. 활동은 수역 생태문명 건설과 수생생물자원 보호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고 전 성 어업자원 회복과 수역 생태환경 개선을 촉진하게 된다.

/ 백산시융합매체중심

건설은행, 장백현 빈곤우수생에 장학금

2025년 전국 대학입시가 막 끝난 6월 10일 오후, 중국건설은행장백조선족자치현지행은 장백현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및 장백현교육체육국 관련 책임자들과 함께 장백현실험중학교 마록구분교를 방문했다. 이날 일행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사상품행이 우수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난 고중 1, 2학년 학생 5명에게 총 5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중국건설은행장백조선족자치현지행 공전해 행장은 장학금을 수여받은 5명의 우수학생들에게 “꾸준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와 사회에 보답할 것”을 당부했다.

료해에 따르면 장백현실험중학교



마록구분교는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52명의 수험생중 600점 이상이 10명(물리 유형 9명, 력사 유형 1명), 최고점수는 652점을 기록했다. 중점대학교 입학선에는 50명(96.15%)이 합격하고 본과선 합격률은 100%에 달해 장백현실험중학교 사상 최고의 대학입시 성적을 따냈다.

/ 최창남, 리소군(李少君)

양로관리사, 로인들의 행복한 황혼 지킴이로

류완원(35세)과 그의 동료들은 천진시 하서구 우의로가두 빈서빌딩 가정양로봉사중심에서 ‘양로관리사’로 일하면서 사회구역 60세 이상 노인 천여명에게 양로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은 집 보수와 병원 동행 봉사 등 주문을 처리해야 해요.”

류완원은 아침 회의에서 양로봉사 일정을 조율한 후 동료들과 함께 ‘로인대학’ 활동에 참석하는 로인들을 마중하러 입구까지 나왔다. 그들을 만난 로인들은 반갑게 웃으며 몇마디씩 안부를 나누었으며 악수하거나 포옹을 하는 로인들도 있었다.

‘양로관리사’는 사회구역 가정양로봉사 일선에서 활약하며 로인과 양로기관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행사 조직, 수요 발굴, 자원 매칭 등을 통해 사회구역 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류완원은 “돌봄 인력과는 다르게 로인들의 개별적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을 매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돌봄, 병원 동행 등 봉사를 제공하고 식사, 가사, 심리 등 면에서 로인



들을 돌보며 그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인관계 및 즐길거리에 대한 로인층의 수요에 맞춰 ‘로인대학’ 강좌를 열어 다채로운 문화생활도 제공하고 있다. 명절에 자녀가 집에 오지 못하는 로인들이 있으면 집을 찾아가 로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준다. 또 편리하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로인들을 위해 소매업체와 함께 ‘문앞’까지 배달되는 공동구매

관련 봉사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로인식당 운영, 심부름, 병원 동행, 가사, 집 보수 등 봉사도 제공한다.

“로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녀처럼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류완원은 ‘양로관리사’의 일을 설명한다.

봉사 효률을 높이기 위해 류완원의 봉사중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로인들은 외출할 필요없이 스마트 기기를 리용해 ‘양로

관리사’와 연락하고 정보 및 공지 사항을 확인하며 봉사를 주문하고 공동구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구 로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양로봉사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역의 여러 사회구역에서는 ‘양로관리사’ 일자리를 마련해 관할구역내 고령 주민들에게 섬세하고도 맞춤형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년간,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장기간병인, 사회구역 양로보조사, 로인목욕보조사 등 로인 돌봄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을 련이어 발표하며 양로봉사를 더욱 세분화, 전문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양로봉사사(养老服务师)’라는 전문 직업에 대한 신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양로봉사 전문 인재와 관련된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로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유망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 신화넷